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급등

-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무역 문제 등과 관련해 통화하고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감. 겹 상승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자와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일부 기관 매수에 힘입어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2,090P선 회복에 성공. 코스닥도 금융투자자와 개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5% 이상 폭등하며 690P선을 회복.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년, 3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 원달러 환율이 1,121원까지 하락했으며, 미국과의 갈등 완화 및 경기부양 기대감에 중국증시가 급등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임
-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증시가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한강 물환경관리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수자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국제유가가 7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하고, 일본 노선 회복으로 지난 달 여객 수요 증가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에 따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완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며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주도. 또한, 영구자석 및 관련 응용제품 개발, 생산업체인 노바텍은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중국 기업을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AC101 위암 및 유방암 항체신약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애플클론이 초강세를 보임. 반면, 외국계 매도세로 KT&G와 오리온이 약세를 보였으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SK텔레콤도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노바텍(285490) ▶18,300 (상한가)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자석 및 관련 응용제품 개발, 생산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를 기록 - 동사는 마그넷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세계 최초 자석 차폐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IT 기기의 심재(스마트폰 액세서리)와 케이스 등에 적용하는 다양한 마그넷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증권주	코스피 2,090P선 회복에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주식시장이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 급락을 상당부분 만회함. 코스피가 2,080P선을 회복하며 코스닥이 690P선에 근접하는 등 강세를 보이며 증권주 동반 상승 - 키움증권(039490, +9.87%), NH투자증권(005940, +9.35%), 삼성증권(016360, +8.11%), 미래에셋대우(006800, +7.75%), 한국금융지주(071050, +7.64%), 유진투자증권(001200, +5.76%), 현대차증권(001500, +5.23%) 등 강세
항공주	국제유가 하락 및 10월 여객 수송량 증가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등 일부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가 사흘 연속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여기에 10월 국내 전공항 기준 국적사 합산 여객수송량 증가율과 화물수송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1.4%, 6.2%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한진칼(180640, +9.23%), 진에어(272450, +6.87%), 티웨이홀딩스(004870, +6.44%), 티웨이항공(091810, +5.87%), 제주항공(089590, +5.85%), 아시아나항공(020560, +4.77%), 대한항공(003490, +4.63%) 등 강세
반도체 관련주	미 반도체주 강세에 동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일 대비 5%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내년부터 데이터센터와 5G를 통한 AI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견조한 서버 수요증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테스나(131970, +8.86%), DB하이텍(000990, +8.77%), 네패스(033640, +7.03%), 에스티아이(039440, +6.63%), 이오테크닉스(039030, +6.57%), SK하이닉스(000660, +6.30%) 삼성전자(005930 +4.7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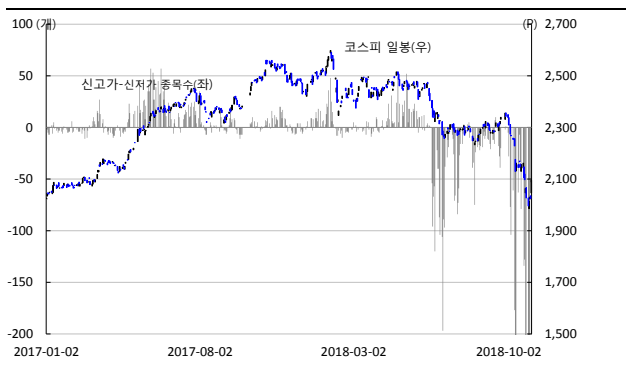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증시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호조와 기술주 반등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충돌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며 사흘 연속 강세를 보임
- 증시에 가장 큰 불안요소로 작용했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며 시장에 호재로 작용.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역정책과 관련해 서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이달 있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를 통한 양국간 협상 기대감을 높임
- 아울러, 중국 지도부와 재정부, 인민은행 등 당국이 연이어 중국의 경기 부양지지를 내비치며 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임
- 지난주 폭락했던 증시는 이번주 반등에 성공하며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함. 외국인인 순매수로 돌아서며 주 후반 시장 상승을 주도, 코스피가 2,093P로, 코스닥은 690P선을 회복하며 한주를 마감
-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에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과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 등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반도체 업종 상승을 주도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코스피	IT	전기전자	디피씨	7,080	13.1					
	IT	비금속	앤디포스	19,750	13.6	IT	통신장비	알에프텍	5,600	10.1
코스닥	IT	반도체	네패스신소재	64,300	27.9	산업재	비금속	동양파일	7,250	17.2
	IT	IT부품	파워로직스	6,870	32.2	경기소비재	기계장비	화신테크	6,440	52.9

주) 상기 종목들은 11월 2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